

<아름다운동행 자비나눔 후원의 밤>

치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모두가 분주한 때입니다. 귀중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과 스님들, 그리고 불교포럼 회원님과 불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하였지만, 그랬던 만큼 지혜롭게 이겨내고 격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그러움으로 함께했던 순간들이 훈훈하고 정겹게 이 자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는 어떤 누구라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은 노란색 리본의 물결일 것입니다. 너무도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아픔이 큰 만큼 삶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는 희망 또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세월호의 아픔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온갖 재난은, 자연의 순리와 생명의 존엄을 등한시한 분별없는 욕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삶의 상처로 전이되는 그릇된 관습과 더불어, 계층간 지역간의 불화, 분단된 조국, 경제적 불평등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모두 소멸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다 청명한 기운과 올바른 가치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희망과 평화는 ‘아름다운동행’ 가족들의 한 생각 한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희망과 행복”은 그리는 그 순간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커다란 행복으로 돌

아와 나의 웃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남을 위한 희망의 그림이 행복이라는 모두의 감동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기술학교를 건립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 건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미래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그곳에 싣티우는 소중한 불사이며, 이들에게 찾아올 앞으로의 행복에서 우리 또한 커다란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이렇듯 행복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순간 이곳, 우리의 작은 마음과 조그마한 웃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손잡고 동행의 길을 곳곳이 간다면 그 행복은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직접 만지고 느끼며 감동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